

GIST, '찾아가는 과학캠프' 개최...

해남군 산이중학교 찾아 '과학의 꿈' 심었다

- 전남광주 해남군 산이중 전교생 43명 대상 진로 멘토링·교수 특강·과학 체험 진행
- 교육 기회 적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계기 제공



▲ 7월 10일(금) 개최된 '2026년 GIST 찾아가는 과학캠프'에 참여한 산이중학교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학 입학 때 왜 GIST를 선택하셨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 산이중학교 1학년 김지우 학생의 질문에 GIST 강승모 학생(도전탐색과정 1학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중학생 때 GIST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때 GIST 선배 멘토와의 만남이 제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만난 대학생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과학기술원 재학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강연이 끝난 뒤에도 진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과학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0일(금) 산이중학교에서 '2026년 GIST 찾아가는 과학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과학캠프'는 GIST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회공헌단 '피움'의 활동 중 하나

로, 읍·면 지역 등 과학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대학생 멘토링과 교수 특강, 과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피움’ 소속 GIST 재학생 5명이 산이중학교 전교생 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캠프는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과 소통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날 행사는 GIST 소개를 시작으로 ▲학부생 진로 멘토링 ▲교수 특강 ▲과학키트 조립 체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산이중학교 학생들은 대학생들과 진로, 과학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며 과학의 세계를 한층 가까이 경험했다.

학부생 진로 멘토링에서는 정다희 학생(신소재공학과 2학년)이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습 경험을 비롯해 대학 진학 과정, 대학생활, 전공 선택 과정 등을 소개했다.

GIST 인문사회과학부 하대청 교수(과학기술학)는 ‘AI와 함께 잘 공부하기’를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학습 태도와 AI 활용법을 소개했다.



▲ GIST 인문사회과학부 하대청 교수가 산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AI와 함께 잘 공부하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하 교수는 AI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는 만큼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

로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검증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과 함께 스스로 사고하고 배우는 힘을 함께 길러야 한다”며 “나를 대신하여 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을 돕는 조력자로서 AI를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생 진로 멘토링과 교수 특강에 이어 진행된 과학 체험에서는 산이중학교 학생들이 풍력 충전 자동차 키트를 직접 조립하고 주행 실험을 하며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원리를 익혔다.



▲ GIST 사회공헌단 ‘피움’ 멘토가 산이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풍력 충전 자동차 키트’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을 진행한 설보민 학생(도전탐색과정 1학년)은 GIST 자작자동차 동아리 ‘지붕이(G-BungE)’ 소속으로 실제 자작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다. 이달 열리는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Baja Student Korea 2026)’ 출전을 앞둔 설 학생은 자동차 설계·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의 원리와 자동차의 구동 원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오예린 학생(산이중학교 2학년)은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탄소중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되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구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산이중학교 조진영 교사(국어 담당)는 “학생들이 평소 만나기 어려운 대학생 멘토와 교수님의 강연, 과학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적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과학 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ST 이은지 대외협력처장은 “교육과 과학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번 캠프가 새로운 지적 자극과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과학캠프’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